

**2022** 해외학술탐방

그래**FIX!**팀

---

결과보고서

# 목차

01  
준비내역

02  
일정계획

03  
탐방내용

04  
탐방 이후  
개인적 소감

## •탐방목적

- 싱가포르 HP COE 센터 방문을 통한 4차산업에서의 패키징과 상업인쇄의 변화 및 전망 탐구

## •탐방인원

- 팀 '그레 FIX!' : 김드보라, 노기호, 이보현, 최유리(GCS연계전공 수강생)

## •탐방일정 및 개요

- 탐방기간: 22.06.15.(수) ~ 22.06.20.(월)

- 탐방지역: 싱가포르

HP Graphics Solutions Business Center of Excellence

- 주소 : 3 Tuas Link 4, Singapore 637016

예산사용내역		
항목	내역	금액
교통비	항공료	776,000원
숙박비	GEN Singapore Tangin호텔	349,000원
일비		
식비		
합계		1,125,000원

DAY1 6/15(수)	
시간	내용
14:30	인천공항 집결
16:55	서울 ICN 인천 국제 공항 출발
22:10	싱가포르 SIN 창이국제공항 도착
23:10	숙소 도착

DAY2 6/16(목)	
시간	내용
09:00	HP Centre of Excellence (COE) 이동 및 도착
09:20	소개 및 브리핑 - Edcent Chan
09:30	경영진과의 인사 - Arnon Goldman
09:40	트렌드의 변화, 왜 디지털이어야 하는가 - Yoav Lotan
10:30	휴식시간
10:50	이노베이션 투어 - Edcent / regional & COE team
12:30	점심시간
13:30	label 시장 동향에 대하여 - Rickard Aden
14:30	Press demo & more application showcase 6K
15:30	휴식시간
15:50	Flexibles Packaging 'Applications & Customer success' -Cindy Qian
16:50	HP Digital Pouch Factory more application showcase 25K
17:50	Day 1 요약 및 Q&A - Yoav Lotan

DAY3 6/17(금)	
시간	내용
09:00	HP Centre of Excellence (COE) 이동 및 도착
09:20	3일차 아젠다 공유 - Edcent Chan
09:40	브랜드 보호 및 보안 인쇄 - Jeremy Goh / Harris Sentosa
10:40	휴식시간
11:00	Book your 1 on 1 demo / Meeting - Rickard / Jeremy
12:30	점심시간
13:30	Rickard Aden 인터뷰
15:00	DSCOOP - Motomi
16:30	Day 2 요약 및 Q&A - Yoav Lotan
17:30	숙소로 복귀

DAY4 6/18(토)	
시간	내용
10:00	HP Centre of Excellence (COE) 이동 및 도착
10:30	workflow & solution partners - Dennis Choo (화상)
11:30	Empowering Print Partners to achieve your dreams via Co-Creation - Miin Wong
12:30	점심시간
13:30	Flexibles Packaging -Cindy Qian
15:00	'Applications Customer success' -Cindy Qian
16:30	Day 3 요약 및 Q&A
17:30	숙소로 복귀

DAY5 6/19(일)	
시간	내용
10:00	HP Centre of Excellence (COE) 이동 및 도착
10:30	HP 잉크 공장 견학
12:00	트레이닝 센터 투어
12:30	점심시간
13:30	병원 이동 후 귀국항공편을 위한 코로나 검사(RAT)
14:00	자유시간
19:00	팀원들과 국내에 적용 가능한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토의
21:00	자료정리 및 정보 공유
23:00	싱가포르 SIN 창이국제공항으로 이동

DAY6 6/20(월)	
시간	내용
01:25	싱가포르 SIN 창이국제공항 출발
08:50	서울 ICN 인천 국제 공항 도착



<HP Center of Excellence 내부 전경>





## 다양하게 적용된 인쇄 샘플들

HP Center of Excellence에서는 실제 고객들이 인쇄한 대표적인 인쇄 샘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 포토북, 메뉴판과 같은 일반적인 샘플부터 필름, 스티커, 의류, 대형 광고 등 인쇄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GCS연계전공 수업에서 제작했던 텀블러가 우수 사례로 지정되어 이곳 HP COE센터에서도 전시될 수 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자외선 라이트로 특수 잉크를 확인하는 모습>

## 특수인쇄를 통한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

상품을 사고 팔 때에는 품질에 대해서 보증하기 위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간의 신용을 쌓는 것이 보안 솔루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솔루션들은 단지 기업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정치적 관계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확인하였고 HP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QR,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면 나타나는 특수 잉크 등)

1. 아마존의 시리얼태그를 이용한 고객 투명성 유지
2. 네팔 주류 보안 태그 프로젝트

두 사례를 통해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 디지털 프린터 장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다품종, 소량의 디지털 인쇄가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디지털 프린팅 기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P indigo 디지털 프린팅 장비는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Press demo & more application showcase 6K, HP Digital Pouch Factory more application showcase 25K 등의 시연을 통해 다양한 기기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 GCS연계 전공과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HP Center of Excellence직원들을 대상으로 GCS연계전공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에서 진행했던 ‘중구 노포 메뉴판 리뉴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HP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어려운 식당의 메뉴를 Flexibles packaging을 이용하여 시장에 유통하고자 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과 더 잘 소통하고 협업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국력을 키우는 새로운 방법, 문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 문화강국론의 일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강국론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 여행은 김구 선생이 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의 식당, 병원, 호텔 어디를 가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영어 발음과 억양을 듣고 오히려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몇몇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냐며, 싸이코지만 괜찮아의 김수현을 좋아한다고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택시를 잡아준 일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싱가포르 병원에 ART를 받으러 갔을 때 손흥민 선수의 굉장한 팬이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흥민 선수를 나보다도 자랑스러워해서 충격이었다. 또 어디를 가나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내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더 나아가 충성심을 갖게 한다. 이번 싱가포르 여행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친절한 태도를 접할 수 있었고, 그 태도 덕에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이란걸 깨달았다.

## 인쇄 산업도 결국 콘텐츠 싸움!

HP COE 센터 견학을 통해 앞으로 인쇄산업을 단순히 ‘컴퓨터 통신 장비 판매업’이라고 여기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HP COE 센터 내에는 한정판 코카콜라 에디션, 아이의 이름을 넣어 개인화한 동화책, 구매자 캐리커처를 디자인으로 한 캐리어 등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개인화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다. 실제로 HP는 인쇄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기업에 마케팅 방법과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쇄산업에서도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HP와 다양한 인쇄 기업들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이 중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쇄업종을 퇴행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HP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시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느꼈다.

## 인쇄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기획자

교수님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야의 기획을 하고 싶은데?’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던 일이 참 오랫동안 쓰린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무언가를 만들고,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무언가’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인쇄 기술을 활용한 패키징 콘텐츠 기획자, 혹은 마케터라는 확실한 분야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코카콜라 패키지에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생산되었던 것도 사람들의 소장 욕구를 고취하기 위한 인쇄 기술을 사용한 콘텐츠였다. GS 연계 전공생으로서 인쇄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주전공 경영학의 지식을 융합해서 코카콜라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인쇄기업탐방에서 다양한 인쇄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재까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는지, 그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걸쳐 나만의 패키징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 영어공부의 중요성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어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이번 싱가포르 여행에서 간단한 영어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었다. 매번 팀원들이 도와주었고 내가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일부로 현지인에게 말을 거는 팀원들이 부럽고 멋있게 느껴졌고, 스스로가 아주 부끄러웠다. ‘정말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두었던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여름방학 목표는 토익 850점을 넘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토익인강을 결제했다. 물론 토익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말하게 되진 않겠지만 기초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를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미국 여행에 가서 현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스피킹과 리스닝을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팀원들을 통해 돌아본 나의 모습

뭐든지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는 나와는 다르게 나의 팀원들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했고, 어디를 가도 미리미리 알아보았다. 아마 팀원들이 없었으면 국제 미아가 되었거나, 탐방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뭐든지 대충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 게으른 나의 모습을 ‘인지’하게 되었고, 고쳐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에 약한데 앞으로 이런 모습을 고치기 위해 매사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저번 주부터 TODOLIST를 작성하고 있고 매일 밤 확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있다. 아직 과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많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획형 인간이 되고 싶다.



##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

싱가포르에서 가장 다른 느낌을 받았던 부분은 단연 문화적 다양성이다. 싱가포르에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순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리틀 인디아나 차이나타운과 같이 마을이 형성되고 다양한 종교 관련 건물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들어 만들어진 문화자체가 나에게서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다.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는 있으나 아직 소수자로 취급되는 분위기나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직종, 인종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편견 없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확장될 수 있었다.

### 결국 **personalization**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새로운 과제!

GCS연계전공에서도 이번 HPCOE센터에서도 끊임없이 들었던 건 디지털 트렌트에서는 결국 **personalization**(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전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형으로 주문해야만 했던 아날로그 인쇄와 달리 디지털 인쇄의 장점은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여러가지 출력물을 뽑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순하게 생산력의 증대가 아니라 **personaliz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HP가 항상 가장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는 단연 코카콜라와 협업한 프로젝트이다. 코카콜라 라벨에 ‘이름’, ‘친구’, ‘가족’, ‘사랑’ 같은 문구를 넣었을 뿐인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법을 일으킨다. 이렇게 **personalization**이라는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소재를 어떻게 상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 인쇄 분야의 **New point**

역시 현직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션을 들으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알 수 있었다. 마케팅 뿐만 아니라 인쇄의 기술적인 부분들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디지털 인쇄 장비들과 보안 솔루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만 관점을 두고 생각했던 인쇄 지식들을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도 적용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 외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

HP회사의 분위기는 딱딱한 회사와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서로 협업하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재미있게 일하는 느낌이 들었다. 원래는 관심이 없었던 글로벌 기업들에도 관심이 생기며 영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또한 평소에는 외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별로 없기에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다. 이번 방학을 통해 토익과 영어 스피킹을 준비하여 외국어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HP COE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웰컴 키트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메뉴 리뉴얼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메뉴 리뉴얼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가게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등, HP또한 계속해서 인쇄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기에 이런 프로젝트들에 우호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혹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다. 우선은 웰컴키트에 디지털의 장점 ‘personalization’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다이어리나 볼펜을 받으면 대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주고자 하는 웰컴키트의 목적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중구 쿠폰북 사업이다. 중구의 식당이나 가게들의 신청을 받아 쿠폰을 발행하여 동국대 학생과 가게를 연결해주고자 한다. 이는 웰컴키트와 메뉴 리뉴얼 프로젝트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게에게는 상품의 홍보를 동국대 학생에게는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구 내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구의 인쇄 지도이다. 중구에는 많은 인쇄 기업들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 곳으로 가야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기에 인쇄 초심자를 위해 이를 정리한 출력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인쇄 산업은 더 이상 구식 산업이 아니다!

HP COE 센터 견학을 통해 인쇄 산업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허름한 공간에서 모든 과정을 직접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구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산업이 아닌 자동화, 기계화된 발전된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HP의 프린팅 기계들과 잉크 공장은 모두 자동화, 기계화 되어 있었고 사람은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물이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통해, 인쇄 산업도 4차 산업 혁명, 즉 digital을 이용하고 있는 현대화된 산업임을 깨닫게 되었다.

## 인쇄 산업의 **mission**

HP에서 견학 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강연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인쇄 산업의 미래, 마케팅,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들었으나 모두가 강조하셨던 부분은 ‘personalization’이었다. GCS 연계전공의 수업을 통해서 이미 인쇄 산업에서의 personalization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이번 탐방을 이후에 이 부분이 더 와 닿게 되었다. 소비자들 점점 나만 가지고 있는 것, 특별한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관심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쇄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personalization된 디자인과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제시하고 실행할 줄 아는 creavity와 새로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open mind 또한 중요함을 깨달았다.

## **Packaging**이 인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강연자가 보여주신 영상을 보고 나서 모든 제품은 Packaging되어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패키징이 없다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놀랐다. 소비자는 패키징을 통해서 상품을 인식하며 단순히 패키징이 예쁘고 독특하다는 이유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패키징을 통해 회사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고객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패키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인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패키징 분야를 눈 여겨 봐야 될 것이다.

## 해외 거주 및 취업에 관심이 생겼다.

HP 탐방 동안 HP의 근무 환경을 보면서 해외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불편함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다. 또한, 이번 탐방에서 GCS 연계전공에서 했던 견학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HP 분들이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다. 한국이었다면 질문에 답변할 때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인상 깊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해외 취업 시에는 영어와 같은 언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여름 방학 동안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할 계획이다.

## 인쇄에 대한 관심과 애정

GCS 연계전공을 수강하면서 인쇄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는 했지만 이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었다. 총무로의 인쇄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종이의 가격도 올라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탐방을 통해 인쇄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인쇄 산업에 애정이 생기게 되었고 계속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Digital printing을 통해 인쇄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personalization까지 더해진다면 인쇄 산업의 발전은 끊임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GCS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이외에 여러 프로그램도 신청하여 인쇄에 대해 꾸준히 공부할 것이다.

## UPP(University Printing Platform) 프로젝트 방향성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GCS 연계전공 학우들과 UPP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 고민이 생겼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 배운 HP의 vision과 mission을 UPP에 적용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학기에는 UPP 프로젝트가 좀 더 발전하고 이 프로젝트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문가분들의 session을 통해 HP 가 추구하는 전략이었던 'personalization'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printing 산업의 trend, digital solution ,brand marketing등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했던 point 인 'personalization'전략 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정확한 니즈를 제공하고 사고자하는 이유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위해서는 story telling과 서로 협력하여 생산해내는 co-create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Co-create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digital화된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다룰 '인력'도 중요한 키포인트 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HP라는 브랜드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한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패키징의 힘'을 알게 되다.

탐방 전에는 패키징이라는 분야가 내가 알고 있는 분야보다 훨씬 좁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 printing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없고 패키징이 없는 물품은 없다. 전문 강연자분이 보여주시는 동영상을 보고 패키징은 어느 곳이나 있고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패키징이 없다면 그 물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패키징의 중요성까지도 깨닫게 되었다. 백마디의 단어보다 하나의 그림이 있는 패키징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러한 패키징은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힘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 Printing industry 가 취해야 할 태도

전문가분들이 강연하면서 인쇄산업이 추후에 취해야 할 태도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지금 현재 인쇄산업의 동향에는 small brand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end user가 다양화 되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화된 end user들을 위한 기존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빠르게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빠른 변화가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end user들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과 이를 빠르게 생산해내는 생산공정 자동화가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personalization 전략을 통해 고객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업데이트

HP COE 센터에서 들었던 강연을 통해 personalization 전략을 적용해볼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메뉴판 redesign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redesign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을 위해 맞춤 디자인을 해보는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여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인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인쇄산업이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했고 발전가능성이 낮은 산업이라 생각했지만 HP coe센터 탐방을 통해서 인쇄산업은 오히려 변화하는 디지털세상에서 digital printing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추후에도 인쇄산업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고 packaging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 Personal branding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다

기획, 마케팅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마케터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알기 힘들었고 경험자의 직접적인 조언이 필요했다. 하지만 HP의 임원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사를 위해 남들과는 다르게 노력해오고 내세우는 전략들을 통해서 마케팅의 본질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목표하는 brand marketer가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알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얻기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를 branding 해 볼 생각이다.